

**노틸러스호성
DVR 사업 '출사표'**



단말 분야 전문 기업인 노틸러스호성(대표 최병인 <http://www.nautilus-hyosung.com>)이 신규사업 일환으로 해외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노틸러스호성측은 최근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DVR 제품 'NHS DVR<사진>' 개발을 완료했으며, 일본 대동은행에 60만달러 어치 제품을 공급한 데 이어 교토은행과 50만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틸러스호성은 일본 시장 내 영업을 위해 금융자동화기기 관리 아웃소싱이 전문 기업인 ATMJ사와 협력을 체결, 영업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췄으며, 일본에 이어 미국에도 기존 ATM 판매 채널을 활용해 미국 전역의 금융권, 지방은행 중심으로 DVR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노틸러스호성이 출시한 NHS DVR는 화질의 움직임과 연속성에 따라 세가지 제품(16채널, 8채널, 4채널 모델)으로 구성돼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폴란드 공장에서는 PDP.LCD TV
본격 생산**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금년 5월로 예정된 EU(유럽연합) 확대를 앞두고 유럽통합사업(Pan-Europe Business)에 착수,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기존 독일법인(DEG)을 대우유럽법인(DEE)으로 명칭을 변경,

유럽 사업단의 중심 거점으로 삼고 동시에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을 포함해 유럽 각 국가에 지사 및 지점을 새로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통합사업'을 시작했다.

회사측은 유럽통합사업을 통해 각 법인별 시장공략 전략을 유기적으로 공유, 효율적 마케팅과 매출 증대방안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Globus, EP 등 유럽지역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공동 마케팅, '유럽컵 축구대회' 후원 등의 스포츠 마케팅도 내년부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유럽사업단은 금년 5월 폴란드를 비롯한 동·남부 유럽국가 10개국의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디지털 영상가전 생산 판매를 본격화하기 위해 폴란드 법인을 통해 PDP와 LCD TV 생산에 들어간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영국생산법인(DEUK)에서 PDP TV 생산을 시작한 것처럼 유럽지역 디지털 영상가전 시장이 본격 성장하는 내년부터는 기존의 아날로그TV 생산 라인을 디지털TV 라인으로 일부 전환, 42, 50인치 PDP TV를 연간 6만대, 15, 32인치 LCD TV를 연간 5만대 각각 생산할 예정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홈네트워크 사업 제휴**

LG전자(대표 김쌍수)와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김충훈)가 홈네트워크 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제휴로 양사는 실무 전담반(TFT)을 구성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네트워크 제품 및 솔루션 개발에 상호 협조하고 마케팅과 이벤트 및 홍보 분야에서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사의 이번 제휴는 정보통신부가 디지털홈 시범사업과 관련해 PLC모뎀 표준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PLC모뎀 표준화 부문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양사는 또 LG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LnCP(Living-network Control Protocol)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홈 네트워크 솔루션의 공동개발, 홈 네트워크 제품 간의 연계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제반업무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홈'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솔루션을 시범 사업 세대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증요시한 홈 네트워크 구현에 한발 앞서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의 전력선 통신(PLC:Power Line Communication) 방식이 통일되고, 제품간 호환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내 홈네트워크 표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토로라,
2025세대 겨냥 '파티모토'
휴대폰 출시**

모토로라 코리아 (www.mot.co.kr 대표 박재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2025세대를 위한 새로운 모토시리즈인 '파티모토(Party MOTO)'를 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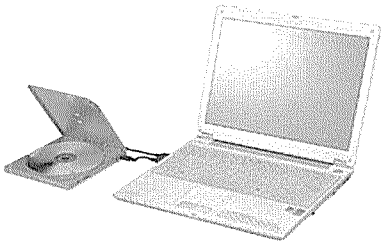
이번에 선보인 '파티모토'는 20대 초반의 스타일과 원하는 기능에 맞춘 휴대폰으로 최경량, 초소형으로 휴대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부가 기능면에서 돋보인다.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들을 부각시킨 '파티모토'는 31만 화소의 초소형 플래시 카메라폰이 내장되어 있어 최대 15장 연속촬영, 동영상 촬영 및 흑백, 세피아톤, 스케치 등 11가지 특수 촬영기능이 있다.

또한 활동적인 사용자에 맞춰 표준형 배터리 장착시 150 분 연속통화(통화대기 240시간)가 가능하며, 무게는 75g(Slim배터리 장착시), 크기는 45 x 77 x 17.8 (Slim 배터리 장착시)로 사용 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모토로라코리아 개인휴대통신 사업부(PCS) 진정훈 부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파티모토’는 파티의 경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테마로 해서 휴대성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부각시킨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모토로라는 슬림모토, 와이드모토, 플래시모토 등 앞선 트렌드와 세련된 스타일을 지향하는 휴대폰 시리즈인 ‘모토(MOTO)’를 출시한 바 있다.

**삼보컴퓨터,
고성능 초슬림 노트북 출시**



삼보컴퓨터(대표 박일환 <http://www.trigem.co.kr>)는 이동성을 강화한 초슬림·초경량 센트리노 서브 노트북 ‘드림북 AG’ 시리즈를 출시, 이달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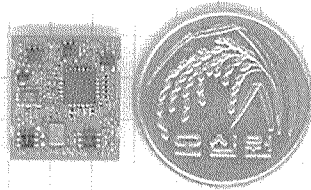
이 제품은 펜티엄M 1.5GHz의 고성능 센트리노 기술을 적용, 고성능을 실현함은 물론 무게 1.3kg, 두께 14mm의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이동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노트북과 달리 ‘펄-화이트’ 컬러를 채택한 ‘드림북AG’는 ‘보디 일체형 터치패드’를 채용하여, 전체적인 일체감과 함께 럭셔리 디자인으로 여성고객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삼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인텔 펜티엄M 1.5GHz, 12.1" LCD, 256MB DDR, 40GB HDD, USB 2.0 외장형 콤보 드라이브를 채택한 초경량 센트리노 노트북 ‘드림북 AG550.A5’의 가격은 249만원(VAT포함)이다.

**삼성전기,
초소형 GPS수신모듈 세계 첫 개발**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http://www.sem.samsung.co.kr>)는 세계 최



초로 초소형·초저전력의 GPS수신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GPS수신모듈은 기존 모듈 크기를 3분의 1 이하로 줄인 초소형(13×14×13.7mm) 부품으로 고기능임에도 최소 전력만으로 GPS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50% 정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또 최신 측위제어알고리즘을 채택, 위치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증폭기·쏘필터(Saw filter)·전압조절기 등 부가 부품을 일체형으로 내장, 면적을 줄임으로써 고기능의 소형 모바일 기기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회사측은 예측했다.

또 삼성전기는 이번 GPS 수신모듈 개발에 고밀도 인쇄회로기판·TCXO·쏘필터 등 자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GPS 수신모듈 관련 부품 매출 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호주에 CDMA장비 추가 공급**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 CDMA 서비스 사업자인 ‘허치슨’과 약 2천5백만 달러 규모의 CDMA2000 1X 장비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8년과 '01년 호주 ‘허치슨’사에 CDMA 95A와 95B 장비를 단독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1X 계약 분까지 포함해 호주 ‘허치슨’의 CDMA 장비를 전량 독점 공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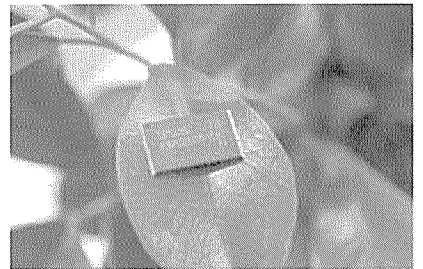
‘허치슨’의 이번 1X 사업은 무선 데이터 통신 등 부가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CDMA 망이 예상보다 빨리 포화 상태에 달해, 가입자 증가와 서비스 수요 확대

에 대비하기 위한 망 증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허치슨’은 이번에 새로 공급받게 될 삼성전자의 1X 장비로 우선 30만 가입자 규모의 서비스 용량을 추가해 '04년 상반기에 60만 회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허치슨’이 향후 3년 내에 1X 가입자를 100만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3년 내에 1억 달러 규모 이상의 시스템을 추가로 공급할 가능성도 확보한 셈이다.

**삼성전자,
8기가 NAND 플래시메모리 출시**



삼성전자가 최대용량의 메모리 제품인 8Gb(기가비트) NAND 플래시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하나의 패키지에 같은 크기의 2Gb NAND 플래시메모리 칩 4개를 적층하는 삼성전자의 독자 패키지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단품 기준으로 세계 최대 용량의 메모리 제품이다.

이 제품에 적용된 4단 적층 패키지 기술은 동일 크기 칩을 1.2mm 두께의 패키지에 4단까지 적층한 최첨단 기술로 이미 해외까지 특허 출원을 마쳤다.

또, 8Gb NAND 플래시에 사용되는 2Gb NAND 플래시는 대부분의 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MLC(Multi Level Cell) 기술이 아닌, SLC(Single Level Cell)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MLC 기술을 사용한 제품보다 특성 및 내구성 측면에서 한층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

△ 2Gb 단품

△ 2Gb 칩 2개를 적층한 4Gb

△ 2Gb 칩 4개를 적층한 8Gb 플래시메모리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휴대폰·USB 드라이브·PDA·MP3 제품 등의 대용량 초고속 NAND 플래시메모리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제품의 본격 양산과 더불어 기존 소용량 하드디스크 및 디지털 캠코더 테이프 등을 NAND 플래시로 대체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 스토리지 분야의 혁명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세계최초로 70나노 4기가(Gb) NAND 플래시를 개발해 4년 연속 2배의 집적도 향상을 실현해왔으며, 올해 NAND 플래시 시장의 약 65% 이상을 점유하며,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성진씨앤씨, '매트릭스 DVR' 출시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 <http://www.sjnc.com>)는 별도의 매트릭스 장비나 PC없이도 원격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매트릭스 DVR'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영상선택 및 카메라 제어 기능을 가진 매트릭스 보드를 DVR 안에 내장, 별도로 매트릭스 장비 및 PC를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6개의 화면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고 카메라의 상·하·좌·우 및 줌기능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2004년 1월 오픈 예정인 경북 영천점을 시작으로 전국 이마트 매장에 설치될 것이라고 성진씨앤씨는 덧붙였다.

심텍, 4억달러 규모 기관 수출

심텍(대표 전세호 <http://www.simmtech.co.kr>)은 비메모리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전문 업체인 싱가포르 스테츠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국·싱가포르·미국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텍은 약 4억달러에 해당되는 물량의 서브스트레이트를 향후 5년에 걸쳐 스테츠에 공급키로 해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 물량은 지난 6월 스테츠와 체결한 물량(500만달러) 대비 무려 8배 증가한 수치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고성장 전망에 따른 서브스트레이트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체결한 전략적 제휴로 풀이된다.

실제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0.4%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올해 13.5%, 2004년 17.0%, 2005년 11.0%, 2006년 2.9% 등 향후 3~4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는 4년을 주기로 움직인다.

또 스테츠는 심텍에 1500만달러를 내년 1월 2일 선수금으로 투자하고 심텍은 이 투자 자금을 스테츠에 대한 물량공급 및 향후 성장을 위한 생산 능력 확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금액 또한 지난 6월 스테츠와 체결한 투자금액(500만달러) 대비 3배 늘어난 것으로 심텍측은 "서브스트레이트 생산능력을 상반기 월 1만 1000㎡에서 하반기 2만㎡로 확대하는데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사는 서브스트레이트 관련 기술도 공동 개발기로 합의하고 심텍은 핵심 인력 파견등 기술교류를 나눌 계획이다.

쓰리알, 3D 영상의료장비 판매 메비시스와 제휴

쓰리알(대표 장성익)은 의료정보업체 메비시스(대표 최정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3차원 영상의료장비 판매사업에 진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메비시스의 3차원 입체 영상의료장비의 해외 판매를 독점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이미 미국·중국·대만·일본을 중심으로 파트너를 확보, 연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쓰리알측은 "3차원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는 기존 CT·MRI 등의 진단 장비에서 활용한 2차원 단면 영상을 입체 화면으로 구현한 신기술 프로그램"이라며 "3차원 영상솔루션 응용이 가능한 의료장비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어필텔레콤, CDMA 휴대폰 대만 공략

어필텔레콤(대표 배인탁)은 모토로라 브랜드로 대만 시장에 CDMA 휴대폰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휴대폰(모델명 MS100)은 대만에서 유통 서비스를 최초로 구현한 단말기로 작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제품이다.

이 회사 배인탁 사장은 "대만은 국민 1인당 단말기 보급률이 110%에 육박할 정도로 휴대폰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크리스마스 연휴 특수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트로닉스, 대림아이앤에스,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 제휴

이트로닉스(대표 강석규 <http://www.inkel.co.kr>)는 대림아이앤에스와 마케팅, 기술개발, 신규 비즈니스 등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AV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업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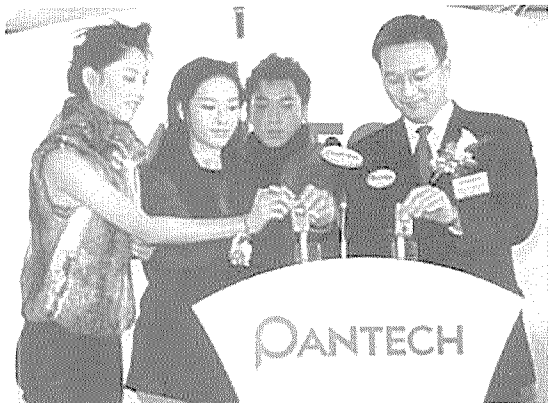
이번 제휴는 홈엔터테인먼트 등 협력이 가능한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양사의 마케팅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하우 및 솔루션을 상호 지원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

용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이트로닉스는 매년 30%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빌트인 시장의 신규 수요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선, 서울 청담동·부산 가야동·제주 노형동·안양 호계동 등 4개지역 아파트(e편한세상)에 최첨단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신규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차별화된 빌트인 제품 및 기타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홈 솔루션 사업으로 연계 확장할 계획이다.

**팬택,
홍콩·말레이시아 독자브랜드
수출**



팬택(대표 이성규)은 21일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팬택' 브랜드로 휴대폰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팬택은 "독자브랜드로 중동 등 잇따른 아시아 시장 진입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글로벌화로 해외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 출시된 모델은 GSM 휴대폰 2종으로 아시아 시장외에 남미, 중동 등에 수출되는 중고가의 카메라폰이다.

팬택의 전현수 상무는 "내년초에 러시아 및 동유럽 시장 등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HP,
사무용 컬러 프린터 출시**

한국HP(대표 최준근 <http://www.hp.co.kr>)는 18일 잉크젯 1종, 레이저 프린터 2종 등 사무용 컬러 프린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용 잉크젯 프린터인 '비즈니스 잉크젯 프린터 2300·사진'은 레이저 프린터 수준의 빠른 출력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당 흑백 문서는 26매, 컬러 문서는 23매를 인쇄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 흑백 레이저 프린터와 유사한 수준인 7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고가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기 힘든 사무실에 어울리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출시된 컬러 레이저젯 3500n과 3700dn은 각각 10명, 15명씩 네트워크로 공유해 쓸 수 있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컬러, 흑백 모두 분당 12매(3500시리즈), 16매(3700시리즈)의 출력 속도를 지원한다.

**한국IBM,
고속 네트워크 복합기
4종 시판**

한국 IBM(대표 신재철 <http://www.ibm.co.kr>)은 고속 네트워크 디지털 복합기 4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델명 인포프린트 2060ES, 2075ES, 2090ES, 2105ES인 신제품들은 각각 분당 60매, 75매, 90매, 105매를 출력하는 고속 디지털 복합기로 1200×1200dpi의 고해상도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복사 외에도 네트워크 기능으로 스캔한 문서를 직접 e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복합기의 제어, 관리할 수 있다. e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열지 않고 바로 출력하는 기능, 출력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첨단 기능도 지원한다.

옵션을 추가하면 스테플링, 편칭 등 간단한 소책자까지 바로 제작할 수도 있다.

**휴맥스,
5년내 세계 10대 디지털TV
기업으로 도약**

휴맥스(대표 변대규)가 셋톱박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디지털 TV 및 홈미디어 서버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5년내 세계 10대 디지털TV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9월 디지털 TV사업부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한 휴맥스는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영국·이탈리아·독일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튜너가 내장된 지상파 셋톱박스 일체형 17인치 LCD TV를 수출할 계획이다.

또 내년 2분기부터 호주·중동지역에서도 LCD TV를 출시하고 특히 세계 최대 디지털 TV 시장인 미국 공략의 일환으로 40인치 이상 PDP TV 제품도 선보이는 등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휴맥스는 이를 통해 내년도 셋톱박스, 디지털TV, 홈미디어 서버 사업분야에서 매출액 4,300억~4,600억원, 영업이익 390억~430억원을 올려 매출액 대비 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변대규 휴맥스 사장은 "디지털 TV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디자인, 화질 및 기능의 차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관련설비 투자에 총 3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조기에 유통망을 확보하고 전략적 제품의 라인

업 구축을 통해 전세계 유명 디지털 TV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톱박스 사업은 디지털 가전 사업의 기반 확보를 위한 캐시카우로 육성하고 전세계적으로 초기시장인 홈미디어 서버분야는 2005년 이후를 대비해 DVD리코더·IP셋톱박스·네트워크·미들웨어 등 기반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 8배속 슈퍼멀티 DVD Writer 출시

LG전자가 DVD+R(1회만 기록할 수 있는 DVD디스크) 8배속 기록이 가능한 슈퍼멀티DVD Writer(모델명: GSA-4081B)를 출시했다.

슈퍼멀티 DVD Writer는 CD 7장 분량의 4.7Gbyte(기가바이트)의 대용량 데이터를 DVD 미디어 단 한 장으로 재생 및 기록,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동안 DVD기록계는 기록 방식이 DVD-RAM, DVD-RW, DVD+RW의 3가지 규격으로 혼재 되어 있고, 상호 완벽한 호환이 불가능해 광저장장치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LG전자의 슈퍼멀티 DVD Writer는 모든 DVD 규격에 호환이 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였고, CD기록계에 이어 DVD기록계에서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제품은 동영상과 음악 등의 미디어 기록에 적합한 DVD+R/RW와 AV기기와 호환성이 좋은 DVD-R/RW 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기록 및 편집에 탁월한 DVD-RAM의 모든 DVD 규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D-R과 CD-RW 기록도 가능하여 CD와 DVD의 모든 미디어에 읽기, 쓰기, 재기록을 드라이브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 120시간 녹화가능 HDR셋톱박스 출시



LG전자가 기존 녹화매체와의 호환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HDR셋톱박스(모델명: LST-3430)를 출시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기존제품들이 이번 신제품에서는 고화질 HD방송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수신과 녹화기능을 추가했으며, 현존하는 모든 Video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A/V입력 단자를 채용해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20GB HDD(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내장하고 있어 아날로그 방송을 최대 120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어 교육방송이나 여학방송 등 지속적으로 녹화해 시청해야 하는 방송의 경우 기존에 VCR처럼 테이프를 매번 교체해 녹화할 필요가 없이 한번만 녹화 환경을 설정하면 1일 1시간 기준으로 최고 4개월 분량을 편리하게 녹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HD고화질 그대로 최대 12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고 HDD에 녹화된 내용은 VCR이나 DVD레코더에 자유롭게 저장해 보관이 가능하며 HDD를 이용해 녹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녹화 매체인 VCR에서는 수차례 반복재생하면 발생하는 화질 열화가 없이 녹화 당시의 원래 화질을 반 영구적으로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기존 녹화매체인 VCR, 캠코더, D-VHS와 편리하게 호환됨과

동시에 손쉬운 편집기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VCR/캠코더에 녹화되어 있는 결혼 기념 촬영물을 LST-3430의 HDD로 복사해 필요한 부분만 편리하게 편집한 후, 편집된 영상물을 VCR이나 DVD레코

더에 다시 옮겨 저장할 수도 있다.

특히, 기존 캠코더의 경우 녹화영상 편집을 위해서 캡쳐보드를 구입해 PC에서 편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LST-3430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체적인 영상편집이 가능하다.

LG필립스LCD, 올 모니터용 LCD 판매량 1000만대 돌파

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가 업계 최초로 모니터용 TFT-LCD 누적 연간 판매량(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10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니터용 TFT-LCD 1000만대는 LG필립스LCD의 2002년 모니터용 TFT-LCD 전체 판매(590만대)의 1.7배 수준이며, 대만업체의 2003년 상반기 모니터용 LCD 전체 판매실적(1065만대)과 맞먹는 수치다. 또한 면적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87만㎡에 이르며, 이는 여의도 공원(22만㎡)보다 4배가량 큰 규모다.

LG필립스LCD측은 "이와 같은 성과는 올해 3월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간 5세대 2공장(P5 1100×1250mm)이 우수한 수율을 확보하였던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밝혔다. ●